

# “동네주민 모두 불자예요”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하천1리 일명 ‘숯불부락’이 불자마을로 탈바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숯불처럼 둘러 쌓인 산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5~6년전부터 현지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불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벌써 15 가구를 형성했다.

숯불부락에는 5m 높이의 석조 아미타여래입상을 모신 노천법당을 중심으로 법당인 녹야원(주지 현우스님)과 참선방(주지 대오법사), 청동불을 조성하는 해성원(원장 김용섭), 불화를 그리는 불광미술원(원장 박갑용), 전통 찻집·불한증막·음식점이 들어서 있으며, 조계종 포교사 부부와, 서울 불광사·봉원사 신도, 현대 미술가, 프로그래머 등이 생업과 수행을 겸한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숯불부락에 불자들이 모여들기

## 현우스님 10년불사 경기 가평 ‘숯불부락’

### 15가구 함께 기도·공양 ‘불교공동체’

### 노천법당·참선방·전통찻집 갖춰

시작한 것은 10년전 이곳에 토굴을 마련하고 수행했던 녹야원 주지 현우스님(63)의 원력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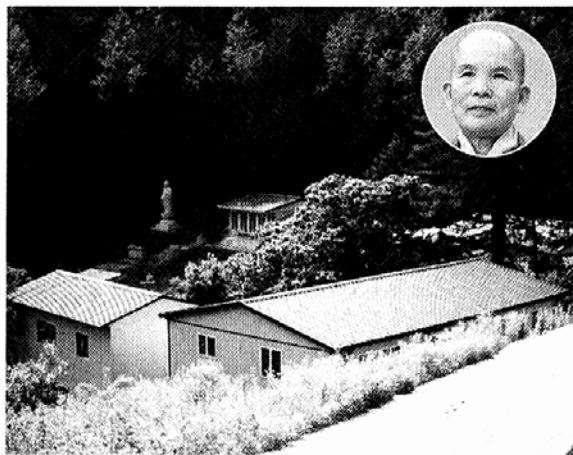
마을을 둘러싼 불기산(佛岐山)이 “부처님이 가다를 나누어 화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감천리(甘泉里)란 옛 지명이 말하듯 맑은 샘물이 나와 불연이 깊은 마을임을 알게 된 현우스님이 인연 있는 불자들을 한·두명씩 이곳으로 이끈 것이다.

실지로 이 불기산 자락의 마을은 현우스님의 원력으로 매일 맑

은 불상이 조성되고 있으며, 불자들의 방문도 나날이 늘고 있다.

13년전 서울 청담동 도심포교당에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생활 불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운 스님은 숯불마을을 불자마을로 조성해 법당 또는 야외법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식당에서 공양을 나누며, 개인적으로 생업전도 해결하는 불교생활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방문하는 불자 가족들에게는 수행프로그램도 마련해 참선, 철야



숯불마을을 전경, 녹야원 아미타여래가 모셔진 노천법당을 중심으로 계곡을 따라 집들이 이어져 있다. 원내는 주지 현우스님.

정진 등도 지도하며 주말농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삼림욕과 산책을 즐기도록 하고, 요사채를 겸한 한증막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천여평의 뒷동산에 인도의 불교 4성지를 25만분의 1로 축소한 극락정원도 구상하고 있다.

해성원 김용섭원장은 “아직은 정착단계이지만, 마음맞는 불자들이 모여들고 생활, 휴식을 함께 하는 불자마을은 생활불교운동의 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평=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종단소식

### 조계종

#### 포교원 관광가이드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현)은 20일부터 21일까지 통도사 및 영축산 일대 암자에서 관광가이드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는 한국불교문화의 특색, 통도사 경내 및 산내암자 탐사, 사찰문화이해, 성보박물관 설명, 불교세계관 이해를 위한 슬라이드 상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황덕사 관음보전 낙성식

오산 황덕사(주지 마갈)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57번지 현지에 관음보전 낙성 및 관음보살 봉안식을 갖는다. 이번 낙성 및 봉안식에는 천대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339)373-2126

### 태고종

#### 총담스님 열반 2주기 추모



지난 98년 음력 5월 4일 스스로 몸을 살라 부처님께 공양하고 열반에 든 이총담 대종사의 2주기 추모법회 및 소신 풍류사리타비 제작식이 5일 갈마사에서 엄숙히 봉행됐다(사진).

이날 추모법회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총담대종사가 생전에 실천하고 닦으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수행을 되새겨 열심히 정진하고 국가와 대중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우담 연수원장, 종원 총회의원, 규범 태고원 이사장, 지성 총무부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2백여 명이 동참했다.

### 대한법회중

#### 총무원 새 집행부 구성

13일 취임한 총무원장 법흥스님은 새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각 부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실장=정봉스님(김창교구원) △사서실장=보광스님(경기남부교구원장) △총무부장=법만스님(서울교구원장) △교무부장=경호스님(부산교구원장) △재무부장=무일스님(대구교구사 주지) △사회부장=해광스님(충북교구원장) △감찰부장=법진스님(강원교구원장) △평화회 중 불사추진위원장=일호스님(서울 팔방사 주지)

### 염불중

#### 대승사 아미타불 점안

총무원(원장 정봉)은 18일 총본산 자옥산 대승사에서 보국불교 염불종 창건 3주년 개산대제와 아미타삼존불 점안식 및 국대민간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대법회는 1부 삼천불전 아미타 삼존불 점안식, 2부 개산대제, 3부 불자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0561)762-7800

### 전태중

#### 정상회담 성공기원 정진

총무원장 운덕스님, 부장 덕수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관운사 명각사 상통사 명화사 등 서울지회 신도 2천여명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개원

한마음선원 문경지원(지인장 청해)은 5월 28일 7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사진)를 개최했다.

개원법회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은 해솔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항상 바른 뜻과 바른법을 마음과 마음, 말과 말로 전달해서 만 중생들에게 큰 이득을 준다”며 “대중들은 자성부처님을 밝혀 고에서 벗어나 참자유인이 되길



비란다”고 말했다. 문경지원은 대지 212평에 법당 28평 요사채 20평으로 구성돼 있다. 김원우 기자

## 향기나는 상담전화 이용하세요

### ‘맑고향기’ 광주모임 062-266-6410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본부장 박원재)는 13일 ‘맑고 향기로운 전화(062-266-6410)’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종합상담 전화서비스를 시작했다.

‘맑고 향기로운 상담전화’는 7명의 상담원이 월~금요일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성, 부부갈등, 자녀, 고부, 이성, 청소년상담에 응한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는 그동안 상담전화 개통을 위해 회원들이 불교상담교육을 이수한 뒤 직접 광주 세종고교에서 학생상담을 실시했다.

박금지 상담실장은 “불법의 진리에 바탕한 전화상담을 통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사회의 진실한 벗이 되겠다”며 “특히 가처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상담에 역점을 두 그들의 재반문제를 예방 및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는 매일 80여명의 광주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적장애이들에게 자비의 도시락을 3년간 제공하는 등 자비의 실천행에 앞장서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 불교도서총판 삼장원 기획전시공간 상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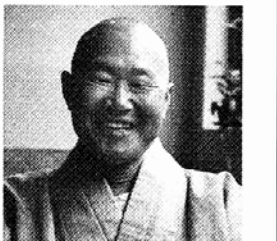
불교도서총판 및 불교용품 전문점 삼장원(대표 정장권)이 시민을 위한 기획 전시공간을 상설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매장을 확장 이전한 삼장원은 45평 규모의 매장 내에 9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 각종 기획 전시를 상설화 하게 된다. 24일 개원 행사에 맞춰 열게 되는 첫 전시에서는 안동 하회탈과 하회탈 캐리커처 상품들 선보인다. 051)248-3582 천미희 기자



2000!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천도제

## “장애인에 꿈 심어주려 걸어서 국토종단 도전”



도천스님은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걸어오는 동안 장애인을 위한 모금 운동과 신장병 예방 강연회 등도 모자라는 모든 성금은 장애인 쉼터 설립, 결혼 가정 돌보기, 맹인 불자 성지순례 등에 알뜰하게 회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 신장병 앓는 도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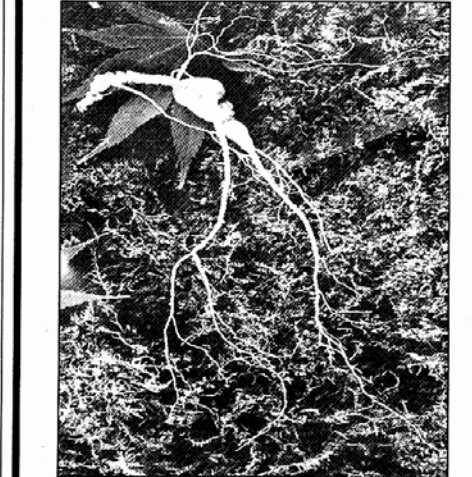
“4백 5십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제 자신에게는 수행의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도천스님(양산 대자비원 지도법사)이 정상인도 어려운 도보 국토종단에 도전하는 이유다. 도천스님은 15년째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이틀에 한번 5시간의 투석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대장암, 위장암 등의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그러나 투병은 이제 오히려 수행의 방편일 뿐이다.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투병이기에 내년 4월 결례일에 맞춰 임진각을 출발한다. 스스로도 “목숨을 건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1백일의 대장정. 5백 80km를 한걸음 한걸음 걸어 해제일에 맞추어 회향할 계획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명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寶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위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象敬하옵는 스님 오늘날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 영원한 진리의 향기

다시보는 법구경

익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차츰 미혹하여 그 나쁜 것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을 이룬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향기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지어로워지며 선을 익혀 마침내 맑고 꽃다운을 이룬다. -본문 중에서

엮은이 허정 스님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사 주지, 총무원 포교연수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파주 심학산 약천사 주지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가장 대중적인 경전으로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 그대로 담긴 《법구경(法句經)》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

허정스님 엮음/본문 301면/값 8,000원

전화 (02)712-1938, 팩스 (02)706-9576  
E-mail : geumsan@kornet.net

금산출판사